

중국 지방어 및 소수 민족 언어 성경 번역사

사이먼 왕*

유연희 번역**

중국어성경 번역사 연구는 중국어의 유형에 따라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곧 고전 중국어(한문)과 북경어(Mandarin), 지방어(더 정확하게는 황안, fangyan) 그리고 소수 민족언어 분야이다. 고전 중국어(한문)와 북경어로 번역된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가 꽤 많다.¹⁾ 최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일하는 동료인 유 수이안(Suee-yan Yu) 박사는 이 분야에 대해 아주 훌륭한 글을 썼다. “중국어 성경 번역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A Brief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to Chinese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라는 이 글은 「성경 원문연구」에 실린 글이다. 이런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각 지방어와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자료가 부족하여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주요 이유는 중국에서 북경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 『화합본』(Union Version)과 같은 북경어 성경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각 지방어와 소수 민족 언어 성경 번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본 글은 유 박사의 연구를 이어가면서 중국의 각 지방 및 소수 민족 언어 성경 역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라는 말은 중국 본토(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와 대만(Republic of China, RC)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사용하려고 한다. 중국 본토와 대만의 미묘한 긴장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²⁾ 이 연구의 전제로서 중국의 각 지방어와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의 복잡한 언어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번역 컨설턴트.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중국어 화합본(Union Version)까지 다룬 가장 폭넓은 연구로는 제체(Zetzsche)의 『중국 성경』(The Bible in China)일 것이다. 이 책은 함부르크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다.

2) 물론 대만의 원주민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브래들리(Bradley)의 글 “중국: 언어 상황”(Brown, “China: Language Situa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에 실려 있음)을 보면 중국에 약 4,000명의 고산족(高山族, Gaoshan)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공식 집계로는 중국 본토와 대만까지 포함하여 모두 40,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언어 상황

중국은 많은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이 다민족, 다언어적 특성 때문에 언어학자들과 민족연구학자들은 종종 중국을 현대 유럽과 비교하기도 한다.³⁾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겨났을 때⁴⁾ 얼마나 많은 소수 민족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잘 모른다. 1954년 선거에서 투표자들에게 국적을 묻자 수백개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당시 소련의 소수 민족 연구 전문가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중국에는 한족을 포함하여 56가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1980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다.⁵⁾ 하지만 이는 단지 민족 분포상황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산족(高山族)이라는 이름은 10에서 14가지 대만 원주민들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56개 민족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족이 아닌 중국인들의 언어 분포는 다음의 세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근대 -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기(1949년) 전까지 1920년대에 산발적인 연구가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2. 집중적인 현장 연구 시대 -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뒤로 1950년부터 1966년까지 각 지방어와 소수 민족 언어 연구가 소련 소수 민족 언어 연구가의 지도 아래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로마자화 체계의 도움으로 한 번도 글로 기록된 적이 없는 (소수 민족) 언어를 연구하였다. 1956년에 정부는 700명 이상의 현장 연구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언어학 훈련을 시켰다. 이 당시의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966년에 64개의 소수 민족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현대 - 문화혁명(1966-1976년) 이후 오늘날까지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3) 크기로 보자면 중국과 유럽은 매우 비슷하다. 중국은 9백만 5960평방 킬로미터이고 유럽은 1천만 1800평방 킬로미터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들 두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중국은 200개 언어, 유럽은 23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1911년 청나라가 망할 때 중국은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동시에 무정부상태였다. 중화민국은 1912년에 생겨났는데 이 뒤로 국민당(1912년)과 공산당(1921년)이라는 두 당이 생겨났다. 결국 공산당이 세력을 잡아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은 대만으로 퇴각하여 지금도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5) 대부분 소수 민족 연구학자들은 민족 그룹이 56개 이상 된다고 말한다. Olson, *An Ethnohistorical Dictionary of China*를 보라. 자연히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소수 민족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축소해서 발표했는데 이는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언어연구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현장 연구가 계속 이어졌고 매우 복잡하다. 『民族語言』이라는 학술지가 생겨 현대 언어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학술지를 통하여 학자들 간에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장 연구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수십 년에 걸친 현장 연구를 통하여 언어 분류법과 철자법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

90명 이상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쓴 2,638쪽 분량의 『中國的語言』이라는 책을 보면 현장 연구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중국에는 지금 각 지방어는 빼더라도 129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수백에서 백만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언어 가운데 약 절반은 지금 소멸되어 없어지는 중이다. 아래 인용한 각 언어는 언어적 특징과 인구통계 분포를 간략하고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다(2000년 국가 센서스에 따름). 129개의 언어는 다음의 여섯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한장어계(韓藏語系) - 76개 언어 (북경어, 티벳어 등)
- * 아이태어계(阿爾泰語系) - 2개 언어 (카작어, 만주어) + 한국어
- * 남도계(南島系) - 16개 언어 (대만의 원주민어)
- * 남아어계(南亞語系) - 9개 언어 (바어)
- * 인구어계(印歐語系) - 1개 언어 (타직어)
- * 혼합어계(混合語系) - 5개 언어 (킹하이의 우툰어로 중국어와 몽골어 등의 혼합어)

이 책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1.59%(11억 5940만)가 사용하고 다른 소수 민족이 공식어로 사용하는 한어(漢語)를 제외하고, 나머지 128개 언어는 55개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들로서 전체 인구의 4.1%(1억 643만)가 사용하는 언어이다.⁶⁾

모든 지방어를 한어(漢語) 밑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중요하고 복잡한 중국의 언어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어”(dialect)라는 용어는 사실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사실 중국어에는 “지방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황-안”(fang-

6) http://www.stats.gov.cn/tjgb/rkpcgb/qgrpcgb/t20020331_15434.htm 을 보라. 『中國的語言』에 실려 있는 통계와 약간 다르다.

yan)이란 말이 때로 “지방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지역어”(region-language), 곧 “지방의 특색을 나타내는 말”(regionallect)이라는 뜻이다. 영어의 “dialect”가 뜻하는 대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다. 하여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북경어(Mandarin)라고 부르는 공식어와 “황얀”(fangyan)이다. 그런데 “황얀”이 바로 이른바 “지방어”와 다른 소수 민족 언어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만다린”(mandarin)이라는 용어는 “정부 관리, 정치지도자 또는 주류작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 엘리트 계층이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보라). 중국어로는 “관화”(guan-hua, 官話, “공식어”라는 뜻)라고 부른다. 이 언어는 북쪽 “황얀”(fangyan), 곧 베이징 지역어에 해당한다. 오랜 기간 동안 북쪽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데, 북쪽 “만다린” 황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1912년 중화민국이 설립되었을 당시 이 언어 형태를 “구오유”(guoyu, 또는 kuoyü라고 음역하기도 함), 곧 “국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만다린어(북경어)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푸통화”(putonghua, 보통 말)라고 부르고 대만에서는 “구오유”(guoyu)라고 부르는데 어휘와 문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⁷⁾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말을 “화유”(huayu)라고 부른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에 일곱 개의 “지방어”가 쓰이고 있다고 계산한다.⁸⁾ 이들 언어는 중국이 제국이던 시절 옛 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북경어/푸통화(普通話, 약 8억 5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언어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어이다. 이 언어는 대만의 공식 언어이기도 하다. 또한 남동부 아시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언어학자들은 말씨에 따라 이 북경

7) “푸통화”와 “구오유”가 차이가 나는 데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1930년대 중국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던 것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투쟁의 주요 요인이기도 했다. 국민당은 다양한 언어 그룹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언어(곧 “구오유”)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산당은 “지방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부) 북경어만 사용한다는 것은 북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2류 국민으로 격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공산당의 관점이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 1956년에 “보통말(푸통화) 장려 지침”이 발표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언어정책이 사라졌다. “푸통화”라는 말은 사실 북쪽에서 사용하는 만다린어(북경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문서는 “푸통화”가 북경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말과 여러 지방어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Ramsey 1987, 13-15).

8) 다른 분류를 하는 것으로는 Charles N. Li and Sandra A. Thompson. “Chinese” in *The World’s Major Languages*를 보라. 이 책의 저자들은 다섯 개의 지방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다섯이란 곧 북경어(Mandarin), 우어(Wu), 민어(Min), 유에어(Yue), 하까어(Hakka)를 말한다.

어를 수백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⁹⁾ 어떤 언어학자들은 북경어 가운데에서도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방어를 진어(晉語)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산시(Shanxi), 화안시(Shaanxi), 헤베이(Hebei), 헨난(Henan), 몽골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 우어(Wu, 吳, 약 9천만)는 여러 지방어가 포함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하이어이다. 물론 제지양(Zhejiyang), 지양수(Jiangsu), 동부 안후이(Anhui) 지방의 많은 지방어가 이 언어 군에 들어간다. 또한 후이조우어(Huizhou, 徽州話, 남부 안후이)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 언어를 간(Gan) 지방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예 다른 지방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 유에어(Yue) 또는 광둥어(粵, Cantonese, 약 8천만)는 남부 중국의 주요 언어로 광둥(Guangdong), 광시(Guangxi), 홍콩, 마카오, 남동 아시아(동부 말레이시아 포함)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유에어(Yue)의 하위 지방어로 분류하는 말로 pinghua(平話)어(平話)가 있는데 광시(Guangxi) 주앙(Zhuang) 자치지구와 후난(Hunan) 성에서 약 2천만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 민어(閩, 약 5천만)는 후지안(Fujian) 성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 지역은 해안 무역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다른 곳과 고립된 곳이어서 지금까지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 언어에는 민남(閩南)(호키엔 Hokkien/대만/아모이 Amoy/테오추오 Teochew/스와토우 Swatow), 민동(閩東, 후조우 Fuzhou 지방어), 민베이(閩北), 민중(民中), 푸 시안(Pu Xian)어, 퀴옹 웬(Qiong Wen, 하이난어)어가 들어있다. 민(閩)어는 싱가포르와 방콕 또한 대만에 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 시양어(Xiang, 湘, 약 3천5백만)는 후난(Hunan) 성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 성(省)의 남부와 동부 산과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옛 시양어”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언어이고 이 성(省)의 북서부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 시양어”는 혼합된 형태의 언어로 인근지역에서 사용하는 푸통화(Putonghua)와 그리 다르지 않다.¹⁰⁾
- 하카어(Hakka) 또는 케지아어(Kejia, 客家, 약 3천5백만)는 북부사람들(한족)이 사용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는 이들은 중세 때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유에어(Yue)와 민어(Min)를 사용하는 농업지역인 남동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살고 있다. 하카(Hakka)라는 용어는 “손님 가족”이라는 뜻의 유에어(Yue)이다(푸통화 말로는 케지아라고 부른다). 케지아는 간어(Gan)와 가깝지만 발음과 용어

9) James Campbell, <http://www.glossika.com/en/dict/dialectum.htm>(2003년 12월 15일에 최신정보로 수정함)을 보라. 저자는 북경어에 523개의 지방어가 있다고 말한다.

10) 시양(Xiang)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오쩌둥으로 그는 시양탄(Xiangtan)이 고향이다. 마오는 북경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가 좀 다른 말이다. 하카어는 대만 그리고 남동부 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 간어(Gan, 贛, 약 2천만)라는 이름은 지양시(Jiangxi)성을 흐르는 간 강을 따라 붙인 이름으로, 지양시성 뿐만 아니라 후지안(Fujian)의 북서부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각 지방어(fangyan)는 사용되고 있는 각 언어형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흔히 일곱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어(황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방어가 지역적으로 주로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언어 분포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곧 중국어는 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북경어”로 알려져 있는 북쪽의 여러 말은 황하 평원과 고원지대(黃土高原)에서 두루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 때문에 북경어 군(群)을 “베이팡화”(beifanghua, 북쪽 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언어 군(群)은 시추안(Sichuan) 성과 유난(Yunnan) 성을 넘어 양쯔강 남쪽까지 심지어 태국 국경까지 두루 사용된다. 따라서 북경어 군(群)이 사용되는 지역은 중국의 3/4이상의 지역이다. 남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른바 비[非] 북경어군[群])는 양쯔강 아래 남동부 지역과 남중국해 연안을 따라가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들 두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다. 북경어군 지역은 비 북경어군 지역보다 훨씬 단일하다. 북경어군은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북경어군 가운데에서도 북동쪽 끝부분에 있는 하르빈(Harbin) 출신의 중국인은 1600마일 떨어져 있는 남서쪽의 중칭(Zhongqing)에 사는 중국인과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비 북경어군에 딸려 있는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비교적 작은 지역 내라도 언어적 특성이 사뭇 다른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남동 해안지역에 있는 아모이(Amoy)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백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조우(Guangzhou)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이들 지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족을 자손으로 두고, 불교와 도교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각 지방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소수 민족 그룹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이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연스레 발전된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성경 번역사를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다른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민족언어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지방어 그룹은 다른 민족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중국어 황안(Fangyan, 지방어) 성경 번역

최근 발행된 중국 황안(지방어) 번역성경 목록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 1950년까지 나온 역본은 새로운 번역과 재판까지 포함하여 모두 597역본이다. 이들은 우어(Wu)와 유에어(Yue)와 민어(Min)와 하카어(Hakka)와 간어(Gan)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홍콩과 대만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면 중국의 각 지방어 성경은 600역본이 넘는다.

한어(漢語)가 아닌 언어는 어떤 철자로 표기할 것인가가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어 성경의 철자표기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어와 로마자 그리고 다른 글자이다(다른 글자는 선교사들과 민족학자들이 고안해낸 것까지 포함한다).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표준 음성 표기법은 “핀인”(pinyin, “철자”라는 뜻) 또는 “한유 핀인”(Hanyu pinyin)이라고 부른다.¹¹⁾ 이 표기법은 중국 본토에서 195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이다.¹²⁾ 소련인 전문가가 고안한 체계(“x”나 “q” 또는 “zh”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를 발전시켜 유명한 언어학자인 차오 유안-렌(Chao Yuan-ren) 등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도 이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어 성경 번역(1930년대 이전)에 사용된 로마자 표기법은 “한유 핀인”(hanyu pinyin)이 아니라 웨이드(Wade-Giles system) 식이다.¹³⁾

대부분 지방어 번역은 한자나 로마자로 표기한다. 물론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첫 황안(지방어) 성경 번역은 상하이어 번역으로 1947년(W. H. 미드허스트가 번역하고 출판한) 요한복음으로서 한자로 표기한 번역이다. 첫 번째 로마자 번역은 1852년에 나왔다. 닝포어(Ningpo) 누가복음이다. 두 언어 모두 우어(Wu)에 속하는 말이다. 아주 소수의 번역은 선교사들이 고안한 음성 기호법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1859년에는 상하이어로 번역한 누가복음이 크로포드(T. P. Crawford)가 고안한 음성 기호법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푸

11) 대만의 표기법은 “핀인”(pinyin)과 다르다. “대만 원주민어” 부분을 보라.

12) 북경어에는 높은 소리, 올라가는 소리, 낮은 소리, 내려가는 소리, 음조가 없는 소리의 다섯 음조가 있다. 따라서 “한유 핀인”(hanyu pinyin)은 “한유 핀인”(hànyǔ pīnyīn)으로 표기해야 한다. 글을 쓸 경우 이 음조를 표기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다. 로마자화 정책과 함께 1958년에는 한어 표기 개혁정책이 시행되었다. 자주 사용하는 글자의 36% 이상을 간편하게 쓰도록 하는 간자체 정책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서법은 지금도 홍콩과 대만과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물론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간자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13) 웨이드(Wade-Giles) 식은 19세기 말 영국의 두 학자가 고안해낸 로마자 철자법으로 오래된 중국 역사 문헌이나 중국 문학을 영어로 표기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다.

조우(Fuzhou)에서는 새로 고안한 3개의 표기법으로 다섯 권이 발행되기도 한다.

지방어	출판물			합계	구약, 신약 또는 개정
	한자	로마자	기타		
				597	
우(WU)	78	78	1	157	
상하이(上海)	43	15	1	59	신약(로마자): 1870/1876 구약+신약(로마자): 1913
수조우(蘇州)	12	1	0	13	신약(한자): 1881/1892/1913
닝포(寧波)	20	33	0	53	신약-주: 1868/1870/1889 구약-주: 1901 구약+신약-주: 1923
항조우(杭州)	1	2	0	3	
진화(金華)	0	1	0	1	
타이조우(台州)	2	21	0	23	신약(로마자): 1881/1894 구약(로마자): 1914
웬조우(溫州)	0	5	0	5	신약(로마자): 1903
민(MIN)	110	120	5	235	
후조우(福州)	73	18	5	96	신약(한자): 1856/1866/1869/1878 구약(한자): 1884 구약+신약(한자): 1887/1891/1895/1909 구약+신약: 1890 (신약-개정: 1895/1900)
시아멘(廈門)	5	38	0	47	신약(로마자): 1856; 1873 구약(로마자): 1902 구약과 신약(로마자): 1921/1927
산토우(汕頭)	21	37	0	58	신약(한자): 1898; 신약(로마자): 1905 구약+신약(한자): 1928
싱화(興化)	11	8	0	19	신약(로마자): 1901 구약+신약(로마자): 1912
차조우(潮州)	0	2	0	2	
지안양(建陽)	0	2	0	2	
샤오우(邵武)	0	1	0	1	
하이난(海南)	0	14	0	14	
간(GAN)	1	9	0	10	
지안닝(建寧)	1	9	0	10	신약(로마자): 1896
하카(HAKKA)	31	18	0	49	
하카(客家)	31	18	0	49	신약(로마자): 1883; 신약(한자): 1904

유에(YUE)	131	15	0	146	
광둥어(廣州話)	127	15	0	142	신약(로마자): 1877/1886; 신약(한자): 1894/1959 구약(로마자): 1894; 1905
리안조우(連州)	4	0	0	4	

중국어 황안 번역의 특징

다음 내용은 두 자료에서 요약한 것인데, 우선 스피렛(Spillet)의 『중국과 중화민국의 성경 카탈로그』(Catalogue of Scriptures in the Languages of China and Republic of China)는 중국어 성경 간행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중국어 황안 번역은 유 루지에(游汝杰)의 탁월한 책 『聖經 方言譯本書目考祿』으로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¹⁴⁾

상하이 어(Shanghai, 우어)

- 미드허스트(W. H. Medhurst, 1796-1857)가 1847년에 한자로 출판했는데 아마도 이 지방어로 처음 번역한 것인 듯하다.
- 썬머스(J. Summers)가 1853년에 로마자로 요한복음을 런던에서 펴냈다. 유지에의 책을 보면 신약전서는 클리블랜드 키쓰(Cleveland Keith)가 1872년에 펴냈으며 개정판을 1876년에 펴냈다. 이 당시 미국성서공회는 (판햄 J. M. W. Farnham 박사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에게 키쓰 역본의 개정 임무를 맡겨 1881년에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스피렛의 책을 보면 로마자로 표기한 가장 이른 신약전서는 1872년의 판햄역이다. 1897년에 영국선교사들과 미국선교사들은 함께 신약전서를 번역하여 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역본이 첫 화합본(Union Version)으로, 1906년에 나온 북경어 신약전서 화합본보다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859년 치버니스(A. B. Cebaniss)는 크로포드(P. Crawford)가 고안한 음성표기법으로 번역했는지 아니면 키쓰의 누가복음을 이 표기법으로 펴냈던 것으로 보인다.
- 첫 구약 부분은 분(W. J. Boone)이 번역한 창세기이고, 구약전서는 1908년에 나왔다.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여 상하이어로 번역한 첫 성경전서는 1913년에 나왔다.

14) 두 자료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자료에 들어있는 데이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판단하는 일은 필자로서는 능력 밖의 일이다.

수조우(Suzhou, 우어)

- 스피릿은 모든 역본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유 루지에는 1891년에 나온 마가복음이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데이비스(J. W. Davis)가 번역한 처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1879년에 나왔다. 또 다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피치(G. F. Fitch,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파커(A. P. Parker, 감리교 감독 선교회, Methodist Episcopal Mission)가 번역하여 미국성서공회가 1880년에 펴냈다. 이듬해 이들 두 사람은 신약전서를 번역했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조직한 위원회가 이 번역을 개정하여 1892년에 펴냈다. 이 번역은 재개정하여 1913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되었다.
- 처음 구약은 1908년에 나왔다. 이 번역은 미국 장로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미국 감리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함께 작업하여 나온 번역이다. 번역자들은 데이비스(Davis), 피치(Fitch), 파커(Parker), 리온(D. N. Lyon), 헤이스(J. H. Hayes), 브리튼(T. C. Britton)이다.

닝포 (Ningpo, 우어)

- 닝포의 번역작업은 매우 활발했다. 신약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번역작업은 1851년에 시작하여 1852년에는 누가복음을 러셀(W. R. Russell)과 맥카티(D. M. McCartee)가 펴냈다. 이 번역은 로마자로 나온 첫 성경이다. 이어서 다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나왔는데, 두 번역가 외에도 마틴(W. A. P. Martin)과 랭킨(H. V. Rankin)과 같은 번역자들이 합류하여 작업했다.
-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와 고우(F. F. Gough)도 번역에 주석을 달면서 1861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865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런던에서 펴냈다. 고우(Gough)와 모울 감독(Bishop Moule)이 작업을 계속하여 1985년에 신약을 펴냈다. 이 번역은 테일러가 침례교회의 필요에 의해 개정작업을 하여 1974년에 미국성서공회에서 펴냈다.
- 고다드(Goddard)와 호어(J. C. Hoare)는 개정 작업을 또 했는데 이 작업은 닝포에서 열린 자문 회의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이 번역은 닝포어로 된 화합본으로 알려져 있다.
- 구약번역은 1857년에 시작되었다. 이 작업에는 마틴(A. P. Martin), 로드(E. C. Lord), 랭킨(H. V. Rankin), 켄킨스(H. Jenkins), 로리스(Miss M. Laurice)가 참여하였다. 다른 번역위원회가 구성되어 모울(W. S. Moule) 등과 함께 주석 성경을 준비하였다. 신약과 구약의 주석 성경은 1923년에 개정되었다. 아마도 이 성경이 중국에서 나온 성경전서 주석 성경인 듯하다.

웬조우(Wenzhou, 우어)

- 웬조우에서 성경 번역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지만 웬조우의 번역은 그리스어 원어에서 번역된 유일한 황얀 번역일 것이다. 번역자는 연합감리교회 자유교회 선교회의 수트힐(W. H. Soothill, 1861-1935)이다. 번역작업은 1888년에 시작되었으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1894년에 끝나고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신약 전서는 1903년에 나왔다.

푸조우(Fuzhou, 민어)

- 윌리엄 웰튼(William Welton)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한자로 펴냈는데, 저본은 1852년에 나온 문리역(고전 중국어 역본)이었다. 웰튼은 교회선교공회(Church Missionary Society)에서 파송받아 1850년에서 1856년까지 의료선교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신약전서는 1856년에 출판되었다. 이 번역은 감리교 감독 선교회 소속 로버트 사무엘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가 개정하여 1866년과 1869년에 펴냈으며 재개정하여 1878년에 또 펴내기도 하였다. 구약 번역은 1884년에 완성되었다. 성경전서는 1887년에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가 연합으로 다시 개정하였고 1891년에는 푸조우에 있는 감리교 감독교회 출판사에서 1891년에 펴냈다. 이 역본은 1895년과 1909년에 각각 거듭 개정하기도 하였다.
- 첫 로마자 번역은 리요드(L. Llyod)가 한 요한복음으로 1881년에 나왔다. 그러나 성경전서는 스튜워트(R. W. Stewart)가 끝내 1890년에 런던에서 펴냈다. 그리고 1895년에 신약을 개정하여 주석 성경으로 1900년에 펴냈다.
- 음성자체로 된 단편(마가, 누가, 사도행전)이 1907년과 1921년 사이에 발행되었다.

아모이(Amoy, 민어)

- 첫 번역은 로마자로 번역한 요한복음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인 엘리후 도티(Elihu Doty)가 펴낸 것이다. 도티는 중국에서 1836년-1864에 활동했는데 미국 해외선교부(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중심인물이었다. 신약은 1856년에 나왔다.
- 로마자로 번역한 또 다른 신약이 1873년에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나왔는데, 번역자들은 맥그리거(W. Macgreger), 스완슨(W. S. Swanson), 카위(H. Cowie)이다. 같은 해에 아모이에 있던 여러 선교회(런던선교회, 영국장로교회, 미국 개혁 화란교회)가 문리 대표본(代表本)을 저본으로 삼아 구약을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각 책이 1880년과 1884년 사이에 나왔다. 이들 번역은 20명의 선

교사 대표들과 16명의 중국인 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펴낸 것이다. 1902년에 구약이 나왔다. 성경전서는 1921년과 1927년에 나왔다. 나중에 파클레이(T. Parklay)가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으로 일일이 대조하여 고쳤다. 이 역본은 중국에서 나온 황얀 번역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본으로 평가받는다.

광둥(Cantonese, 유에어)

- 첫 번역은 프리스톤(C. F. Preston)이 램시우스(Lepsius) 철자법을 따라 펴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다. 1868년에 사복음서의 화합본을 펴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세 지역 위원회를 조직했다. 저본은 텍스투스 레킵투스였으며 광조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표준으로 삼았다. 누가복음과 골로새서가 1871년에 나왔으며 다른 책들도 잇달아 나왔다. 신명을 번역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영국성서공회는 “상제”(Shangdi)를 좋아했고 미국성서공회는 “신”(Shen)을 선호했다. 결국 영국성서공회는 이 기획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렇지만 번역작업은 계속되었는데 조지 피어시(George Piercy)가 책임을 맡아 작업을 했다. 신약은 1877년에 완성되었으나 전체를 발행하지는 않았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1879년과 1881년 사이에 조직되어 신약을 개정했다. 신약전서는 1886년에 발행되었다. 구약번역 작업은 여러 사람이 했는데 교회의 지원을 받아 했다. 1894년에 완성되어 미국성서공회가 펴냈다.
- 스피릿을 보면 미국성서공회가 1894년에 펴낸 한자 성경전서를, 1905/06년에 교회 선교공회(Church Mission Society)가 로마자 성경전서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한자 성경전서는 1959년에 나왔다.
- 1998년 홍콩성서공회는 한자로 인쇄된 광둥어 성경을 펴냈는데 어떤 글자는 광둥어로 표기되어있다. 이전의 번역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대중국어역(Today's Chinese Version)을 저본으로 한 새로운 번역이다. 이 번역은 데이빗 쭈이(David Tsui)가 초역하고 성(S. H. Sung)이 검토하였으며 본인이 이 작업의 번역 컨설턴트로 참여하였다. 이 개정작업을 하면서 일부 광둥어 글자를 현대표기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이 번역은 홍콩에서 두 교회를 가진 작은 교단, 곧 홍콩 오순절교회(Pentecostal Christian Church)에서 교회강단용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황얀 번역일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번역작업에 참여하였지만 교회는 이 광둥어가 옛 광둥어 성경과 너무 다르다고 하였다. 그래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홍콩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2003년에 개정판을 냈다. 개정판 내용은 옛 광둥어 성경에 따라 주로 용어와 철자를 바꾼 것이다. 몇 가지 예외를 빼고서 거의 대부분의 번역은 1950년대 이전에 나온 것이다.

1956년 “푸통화”(Putonghua) 정책의 결과로 북경어 중국어가 점점 많이 사용되면서 이들 황안 번역 성경은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본토의 실정도 이렇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황안 번역작업이 무척 활발하다. 특히 대만어와 하카(Hakka)어의 경우가 그렇다. 1916년에 대만어/아모이어 로마자 신약인 『台語羅馬字聖經』이 나왔다. 이 성경은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 바클레이(Thomas Barclay) 박사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나이가 73일 때 구약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1930년에 완성했다. 대만어 로마자 성경전서는 1933년에 나왔다. 이 성경이 로마자로 된 성경전서로는 유일한 것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이 번역은 한자로 출판되었다. 1990년대 초 대만성서공회는 대만 장로교회와 연합으로 쉬운 말로 된 로마자 성경전서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진 로(I-Jin Roh) 박사, 웅 시우-공(翁修恭) 목사, 장 종룡(張宗隆) 목사, 왕 쉹장(王誠章) 목사이다. 신약은 2008년에 나왔으며 구약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만어 뿐만 아니라 하카(Hakka)어 성경 번역 작업도 대만에서는 활발하다. 1984년 대만성서공회는 캐나다 선교사(중국 이름 麥煜道)와 하카 공동체의 목사와 지도자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하카어(Hakka) 번역작업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 신약과 시편을 한자와 로마자를 병기하여 펴냈다. 현재 잠언과 룻기와 구약 몇몇 책이 끝났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황안 번역의 문제점

앞에서 단편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경어 번역과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번역보다 훨씬 더 자주 개정작업을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첫 한자 푸조우(Fuzhou) 신약은 1856년에 나왔다. 그런데 그 뒤 20년 동안 세 번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상하이, 닝포, 시아멘 등의 번역도 비슷하다. 이전 번역의 질이 문제가 되어 자주 개정작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황안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안은 문학 작품이 남아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하는 말이 다르다. 1884년에 닝포 황안으로 화합본을 내자는 계획이 미국 선교사들과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형태의 말로 번역할 것인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868년에 첫 북경어 성경전서 번역 계획이 수립될 당시 위원회는 광둥성의 제일 큰 도시인 광조우시의 말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힘이 있거나 수가 많으면 이기듯이 이러한 결정도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광둥어 성경 개정작업이 홍콩에서

시작되었을 때 어떤 광둥어 황안을 채택할 것인지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단지 천박한 것은 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홍콩 텔레비전의 뉴스 보도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중국인이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느냐는 점을 생각하면서 황안 번역이 아직도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광둥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광둥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홍콩은 1997년 이전(영국 식민지)과 1997년 이후(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지역)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황안과는 다르게 광둥어로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 일반 잡지와 신문 말고도 유명한 광둥 드라마와 같은 문학 작품이 광둥어로 제작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광둥어로 된 서적을 문화에 뒤떨어진 또는 표준에서 벗어난 문학작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홍콩 사람들은 글은 북경어에 익숙하지만 말은 광둥어를 사용한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번역은 『화합본』(Union Version)이다. 이 번역은 1919년에 나온 성경(신약은 1907년)으로 중국어의 글 형태가 고전(문리)체에서 일상 회화체로 바뀌는 시점에 나온 성경이다. 달리 말해 일상어인 북경어로 바뀌는 때였다. 광둥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북경어로 씌어 있는 책을 읽을 때 당연히 광둥어로 발음한다. 따라서 광둥어로 씌어 있는 책을 읽는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읽기는 광둥어의 발음대로 읽지만 문장구조나 어휘는 사실 모두 북경어이다. 교육받은 광둥사람들은 이러한 읽기 관례에 익숙하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덜 교육받은 사람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할 뿐더러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다. 이러한 상황은 광둥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홍콩의 일부 개신교회는 황안을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데 특별히 하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19세기 바젤 선교회가 설립한 홍콩 춘친 선교회 the Tsun Tsin Mission in HK가 그렇다)과 스와투우어(Swatow)를 사용하는 사람들(북경어로는 차오조우 Chaozhou라고 한다)을 선교하는 경우가 그렇다. 광둥어를 사용하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들 황안을 사용하는 교회는 『화합본』 중국어 성경을 읽을 때 각 황안으로 발음한다.¹⁵⁾ 이러한 언어적 혼합 현상은 중국 본토에서 황안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2007년에 나는 난징 유니온신학대학교에서 중국 전역에서 온 38명의 목사님과

15) 필자는 스와투우에서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렸을 때 나는 스와투우 말을 매우 잘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홍콩에 있는 어느 스와투우 침례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스와투우어로 복음서를 읽을 때 사실 그분이 어디를 읽는지 따라가지 못했다.

두 주간 동안 집중 코스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다. 스와토우를 말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늘 성경을 스와토우식으로 읽어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북경어와 광둥어의 차이는 별로 많지 않아 문제가 덜 하지만 다른 황안을 말하는 분들은 이런 언어적 혼합 현상으로 모국어에도 생소한 언어형태가 생겨나기도 한다.

모든 한족이 같은 글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북경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황안과 북경어의 언어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황안으로 번역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이다! 그런데 황안 번역을 출판할 때 어떤 글자로 출판하느냐가 문제이다. 황안으로 기록하는 문학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어떤 글자로 표기하느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광둥어의 경우 순전히 말로만 표현하는 광둥 드라마와 같은 예외가 있지만 문학 작품이 광둥어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성경을 광둥어로 펴내는 일은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는 광둥어를 말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은 광둥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즐거워하거나 기분이 나빠하기도 한다. 옛 광둥어 성경이나 그 개정판을 읽어도 마찬가지이다. 황안 번역이 수천만의 황안을 말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오디오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더 나은 듯하다. 사람들의 일상경험은 거의 오디오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중국 본토의 성경 출판 정책에 대해 말해 보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전통적인 형태로 성경 출판을 지원하던 무렵 이 정책이 황안 번역에도 확대되어 책이나 오디오 형태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소수민족 언어 성경 번역

중국에는 기술적인 민족학 전통이 없다. 제국주의 시절에 지배세력은 한족이 아닌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속셈 밖에는 없었다. 중국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중국 내 여러 민족의 주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오족공화”(五族共和)라는 개념이 중국의 새로운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정신이 국기에 반영되어 이 국기 속의 다섯 줄은 만주족(滿), 한족(漢), 몽골족(蒙), 후이족(回), 티벳족(藏)의 다섯 민족을 나타냈다.¹⁶⁾ 나중에 이 줄은 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당시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중국

16) 이 기공은 “중후와 민주”(中華民族)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다. “중국 민족 그룹”이라는 뜻이다. 이 개념은 1899년 리양 퀴-차오(梁啓超)이라는 개혁가가 처음 만든 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 속에 한족, 만주 사람, 몽골 사람, 미아오 사람, 티벳 사람을 포함시켰다(「合漢合滿合蒙合回合苗合藏, 組成一大民族」).

의 민족 지도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연구도 하지 않았다. 조직적인 민족학 탐사는 1950년대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소수 민족 언어”라는 용어는 한족 언어를 사용하는 큰 그룹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인구로 볼 때 가장 큰 소수 민족은 “주앙”(壯) 사람이다. 광시 주앙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와 유난성에 있는 웬산 주앙-미아오 자치주(文山壯苗自治州)에 사는 1천 6백만 인구이다.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은 종구오 유안(ZhongGuo YuYan)에 나오는 공식 연구에 따르면 “자”(扎) 사람인데 약 300명이 티벳 자치구의 몇몇 마을에 살고 있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황안 번역과는 대조적으로 소수 민족 성경 번역의 역사는 훨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도 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번역의 초기 역사는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보는 드문데 그 까닭은 중국 본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 번역 작업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작업은 잘 알지 못한다.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이라고도 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Wycliffe Bible Translators)라는 단체가 벌이고 있는 소수 민족 언어 번역 프로젝트가 약 20개 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

이들 역사를 구성하자면 지역적으로 세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부와 북서부(몽골, 신징, 티벳, 만주)에서 진행되는 번역 작업이다. 중국에서는 이 지역에서 소수 민족 언어 성경 번역 작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또한 유난(Yunnan)에서 벌어진 번역 작업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타이완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지리적 분포와 언어 유형 그리고 각 소수 민족 통계는 “종구오 유안”(Zhongguo Yuyan, 2007)에 실려 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책에 실려 있는 인구 통계는 중화인민공화국 2000년 국가 센서스를 따른 것이다. 대만 원주민들의 인구 통계는 특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본토의 북부와 북서부

흔히 “대진경고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라고 하는 781년의 네스토리안 비문에¹⁷⁾ 언급되어 있는 성경 번역 작업 말고도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 작

17) 이 비문은 시안(Xian)의 “비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슷하게 생긴 비문이 전 세계에 6개 나 흩어져 있다.

업은 기원후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

2000년 현재, 약 580만명의 몽골 사람들이 내몽골에 살고 있으며 약 200만명이 외몽골에 살고 있다. 1911년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외몽골이 독립하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옛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무렵 내몽골은 중국의 성으로 재편되었는데 194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몽골 자치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선교 활동은 6세기와 7세기에 네스토리아인들이 처음 시작하였다. 네스토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예전어는 시리아어였다. 네스토리아인들이 중국어로 번역했듯이 몽골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번역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몬테코르비노(Montecorvino)의 요한.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소수 민족 성경 번역은 이탈리아 사람 프란치스코 사제인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약 1247년-1330년)이 몽골 왕조 때 한 번역이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다. 요한은 중국에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아르메니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있었다. 1291년 요한은 페르시아와 인도를 거쳐 이듬해 대상들과 함께 중국에 들어왔다. 이때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의 환대를 받았다. 34년의 몽골 선교활동은 외로웠지만 매우 유익했다. 그는 약 6천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¹⁸⁾ 베이징(지금의 베이징)에 교회를 세우기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시편과 신약전서를 원주민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타르타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타르타르 말과 글자를 꽤 알고 있다. 지금 나는 이 언어와 글자로 신약전서와 시편을 번역하였고 아름다운 서체로 이를 쓰게 했다”(Dawson 1955, 227).¹⁹⁾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는 위구르어(Uighur)이거나 위구르 글자로 기록한 몽골어인 듯

18) 코벨(Covell 1995, 118-19)은 그러나 요한이 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로마교회로 개종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많은 이들이 유럽인들, 아르메니아인들 또는 페르시아인들이었으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던 몽골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코벨에 의하면 요한과 그를 따르던 수도사들은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말한다.

19) Catholic Encyclopedia 1914년판에는 이 번역이 중국어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http://www.newadvent.org/08474a.htm>을 보라), 제2판에는 이 번역이 원주민 언어로, 곧 “아마도 위구르 어이거나 위구르 글자로 기록한 몽골어로 번역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다. 불행하게도 이 번역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위구르족은 시리아어에서 나와 속디안어(Sogdians)를 거친 철자법을 사용했다. 징기스 칸(Genghis Khan 또는 Chinggis Khaan) 시대에 위구르어는 몽고어가 되었다. 원래 시리아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했는데(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은 그렇게 썼을 것이다), 수직으로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Garamtseren, pp. 1-2). 현재 수직으로 쓰는 것은 내몽고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면, 외몽고는 키릴(Cyrillic) 문자를 사용한다.

아이작 슈미트(Isaac J. Schmidt, 1827).

몽골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개신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칼묵(Kalmuk 또는 Kalmuck) 불교인들이 러시아로 피신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1616년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불가강 하류를 따라 러시아로 들어왔다. 얼마 안 되어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들에게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불교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도록 억압했다. 개종한 이들 불교인들은 1737년에는 그 수가 약 3천명쯤 되었는데 불가 강가 스타브로폴(Stavropol) 근처에 살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칼묵 사람들은 종교적 압력에 견디지 못해 1761년경에는 약 60만 명이 중국 땅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즈음 러시아 기병대는 피난민들을 뒤쫓아가서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그 결과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브룸홀(Broomhall)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인 파라오가 홍해에서 망하지 않은 것 말고는 이 사건은 현대판 출애굽이었다”(1934, 126-127). 이렇게 억압이 자행되던 때에도 성경은 번역되었다.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던 초창기에도 이미 성경의 몇몇 책이 그들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⁰⁾ 본격적인 번역 작업은 모라비아인 아이작 슈미트(Isaac J. Schmidt) 박사가 시작하였다. 그는 1800년대 초에 러시아의 사렙타(Sarepta)로 들어와 칼묵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공부하였다. 1813년에서 1826년까지 그는 러시아성서공회의²¹⁾ 회계로 일하기도 했다. 1812년 몇몇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슈미트는 마태복음을 칼묵어(서부 몽골어)로 번역하였다. 1815년까지 이 번역은 출판되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일어나 원고를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슈미트의 칼묵어 마태복음 번역에 대해 부랴트(Byrat) 몽골인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사실 이들은 내용을 무척 알고 싶어 하였

20) 가람체렌(Garamtseren, 2쪽)에 따르면 콘라드 니츠(Conrad Neitz)라는 모라비아 인이 모라비안 합본 복음서 몇 부분과 성경 몇 구절을 1768-69년에 번역하였다.

21) 러시아성서공회는 짜르 알렉산더의 인준 하에 1813년에 설립되었다. 나폴레옹 군대의 패잔병들이 모스크바에서 마지막으로 퇴각할 즈음이다.

다. 그래서 부랴트 왕자인 갈리찐(Galitzin)은 놉투(Nomtu)와 바드마(Badma)라는 부랴트 학자들에게 성경 번역 작업을 도우라고 명하였다. 이 두 학자도 번역 작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갈리찐은 러시아성서공회에 550파운드를 주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두 학자는 성페테스부르그에 도착하여 짜르의 영접을 받았다. 슈미트가 칼묵어로 번역한 것을 이들 두 사람은 다시 몽골어로 번역하였다. 신약전서가 번역되어 1827년에 성페테스부르그에서 활자짜는 일을 하였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출판되었다. 브룸홀(Broomhall 1934, 129)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 교회회의(Holy Synod)가 영국성서공회의 신약전서 발행 권한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들이 성서 발행 권한을 원했기 때문이다.

스톨리브래스-스완 몽골 성경(1846년).

몽골 사람들이 무척 열심이었기 때문에 런던선교회는 시베리아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1817년 또는 1818년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인 에드워드 스톨리브래스(Edward Stallybrass) 부부는 시베리아에 도착하여 셀렌진스크(Selenginsk)에 자리를 잡았다. 이르쿠츠크(Irkutsk)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마일 떨어진 곳이다. 이후 25년 동안 이 부부는 몽골어 문어(文語)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헌신했다. 물론 나중에는 윌리엄 스완(William Swan) 목사와 그곳 부루얏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성경은 시베리아와 몽골에 사는 부루얏 사람들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된 것이다. 다음 보고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우선 각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한 책이나 다른 책을 번역한다. 물론 본 문비평이나 주석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이렇게 초역을 해서 공부한 부루얏 사람에게 곧 라마(lama)에게 언어적으로 정확한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한다. 그러면 훌륭한 원고를 되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음역하면서 개정 작업을 한다. 이렇게 개정한 것을 다른 두 번역자에게 넘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원고를 검토하고 의견을 단다. 이렇게 개정작업을 한 뒤 검토한 이들과 다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때 달리 읽기(異讀)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역을 한 이는 될 수 있는 한 초역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자 했다. 번역에 사용된 문체는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문체와 이보다 좀 어려운 불경 문체 그 사이 짬으로 하였다.²²⁾

1830년에 번역이 끝난 듯하지만 1840년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래도

22) C. R. Bawden, *Shamans, Lamas and Evangelicals: The English Missionaries in Siber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296-297을 보라(Garamtsem, p. 6d에서 인용함).

록 출판되지 않았던 이유는 러시아성서공회의 검열 때문이었고 슈미트(Schmidt)가 그 책임을 맡고 있었다. 선교 활동은 러시아성서공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늘 그렇듯 성서공회가 전도용 소책자와 번역 성경을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성서공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듯한데 스톨리브래스와 스완이 슈미트의 신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1824년 긴 과정을 거친 뒤에 셀렌진스크 선교지부에서 인쇄 작업을 하였는데 인쇄허가를 받는 데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신약은 1826년 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런던선교회 총무의 보고에 따르면 스톨리브래스의 선교학교 학생인 린진(Rintsin)과 다른 동료인 로버트 유일리(Yuille)가 신약과 시편을 러시아어 성경과 다른 슬라브어 성경에서 번역하였다. 신약은 1846년에 인쇄되었다. 이것이 몽골어 문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전서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몽골어 활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만주 활자로 책을 인쇄하였다.²³⁾ 나중에 가서야 몽골 활자로 인쇄할 수 있었다.

프랜스 라슨(Frans A. Larson, 1913).

몽골의 성경 번역은 놀랄 만큼 활발했다. 코벨(Covell, 1995, 127)이 말한 대로 19세기 말에 “성경 전체 또는 그 일부가 고전 몽골어, 북부 몽골어인 부르얏어, 남부 몽골어인 칼묵어 그리고 동부 몽골어인 칼카어(Khalka)로 번역되었다.”²⁴⁾ 문제는 당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포했느냐 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몽골에서 독자적으로 선교활동을 한 프랜스 라슨(Frans A. Larson)이 이 일을 했다. 그는 초기(1893년-1900년)에는 그리스도교 선교 연맹(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 소속 선교사로 나중에 영국성서공회의 직원으로 일했다. 라슨은 몽골을 중흥무진 돌아다니며 문어체 몽골어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를 반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라슨은 스칸디나비아 몽골 선교 연맹의 앰블랜드(A. F. Ambland)와 함께 이 번역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작업이 특별한 것은 외몽골 자치주(1911년에 생김)의 관세청장이었던 폰속 세아림(Ponsok Searim)의

23) 브룸홀에 따르면 두 활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만주 글자는 몽골 글자를 본 따서 만든 것이다. 몽골 글자는 위구르 글자를 본 따 만든 것인데, 위구르 글자는 네스토리안 사람들이 소개한 옛 시리아어 글자를 채용한 것이다. Broomhall, *The Bible in China*, 130을 보라.

24) 칼카어(Khalkha) 번역은 사무엘 셰레셰프스키(Samuel I. J. Schereschewsky) 감독과 영국 선교사인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가 라마의 도움으로 처음 번역하였다. 마태복음만 출판되었는데(1873년) 이 번역은 문어체 몽골번역을 대본으로 삼아 북경어 성경과 만주어 성경을 참조하여 옮긴 것이다.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몽골 선교 연맹(Scandinavian Alliance Mongol Mission) 소속 선교사인 데이빗 스텐버그(David Sternberg)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펴냈다. 불행하게도 스텐버그는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 사건(the Boxer Rebellion) 때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 기도 했다. 불교(또는 라마교) 정부의 고위직 관리가 사임하고 성경 번역을 도왔다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개정은 일본에서 출판되어 1913년에 상하이에서 선을 뵈었다.

내몽골 그리스도교 공의회(Christian Council).

오늘날 외몽골에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⁵⁾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자문인 수이-안 유(Suee-yan Yu) 박사에 따르면 신약 사본들이 돌아오닌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번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듯하다. 2000년 초 내몽골 그리스도교 공의회는 초청으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5년에 번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워크숍이 열렸다. SIL의 정제순 박사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자문인 수이-안 유 박사, 민영진 박사 그리고 민경식 박사가 함께 맡아 워크숍이 끝났다. 번역 팀이 2006년에 꾸려져 현재 사복음서의 원고가 완성된 단계에 있다. 현대중국어역본(Today's Chinese Version)을 모델로 삼은 번역이다. 수이-안 유 박사가 이 프로젝트의 번역 자문역을 맡고 있다.

<주요어>(Keywords)

성경 번역, 중국 방언, 몽골 성경, 대만 성경, 방언 번역, 소수 민족어.

25)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잘 알려져 있다. 1953년 스투어트 군젤(Stuart Gunzel)이 일상어 번역성경을 펴냈는데, 세 사람의 몽골인과 스웨덴 몽골 선교회(Swedish Mongol Mission) 소속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영국인 존 기븐스(John Gibbens)가 신약을 펴냈는데 SIL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한 것이다. 이 작업에는 칼 그로스(Carl Gross) 박사와 스티븐 패튼모어(Stephen Pattenmore) 박사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 자문으로 참여하였다. 신약은 1989년에 완성되어 1990년에 출판되었다. 구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기능 동등성 원칙으로 나온 번역이 2000년(신약 1997년, 구약 1998년)에 몽골 성경 번역회(Mongol Bible Translation)에 의해 나왔다. 이 번역은 NASB를 모델로 삼아 번역한 성경인데 지금 개정작업 중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자문인 민영진 박사와 민모세 박사가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Abstract>

**Towards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mong the Dialects and
Ethnic Languages of China**

Dr. Simon Wong
(UBS Asia-Pacific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e paper attempts to provide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mong the dialects and ethnic languages of China (including Taiwan). There are 129 languages spoken by 56 ethnic groups in modern China; under Mandarin, one may further identify another six major *fangyan* (or dialects). Among these major *fangyan*, translations were found in Wu (such as Shanghai, Suzhou, etc.), Min (such as Xiamen/Taiwanese, Chaozhou, etc.), Gan, Hakka, and Yue (or called, Cantonese). History of ethnic language translation may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north and north-west area of China (including Mongolia, Xinjing, Tibet, and Manchu) which represented the pioneering work of Bible translation among the ethnic groups in China; in Yunnan where eleven language projects are documented here; and in Taiwan where seven language projects are included.